

# EBS강의 이용률 ‘뚝’, 사교육 ‘쑥’... 정책 실효성 의문

(사교육 경감)

4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  
학종 등 수시모집 전형 증가 요인  
2022년 EBS 연계율 70%→50%  
영향력 축소로 이용자 더 줄 듯

수능시험의 70% 수준으로 연계 출제되는 EBS 강의 이용률이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07년~2017년 EBS 수능 강의 활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EBS 수능 강의 1일 평균 이용자수는 51만4493명으로 전년도(2016년) 62만8163명 대비 18.1%(11만3670명) 대폭 감소했다.

EBS 수능 강의 이용자 수 감소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으나, 학생 감소폭의 3~4배 수준으로 EBS 이용자 수가 줄었다. 실제로 2017년 고교생 전체 학생 수는 166만9699명으로 전년도(2016년) 대비 4.7%(8만2758명) 감소에 그쳤다.

수능과 EBS 강의·교재 연계 정책은 정부의 대표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2010년(2011학년도 수능 대비)부터 본격 도입됐다. 수능 시험 문항 기준으로 70%



ebs 수능강의 사이트 /캡처

를 EBS 강의나 교재에서 출제해 수능 사교육을 저제한 EBS 강의로 대체하자는 취지다.

EBS 수능 강의 1일평균 이용자수는 본격 도입된 2010년 56만8064명으로 시작해 증감을 거듭해 2015년 72만1430명으로 최대를 기록했으나, 2016년 62만8163명, 2017년 51만4493명으로 본격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BS 수능 강의 회원 수도 2013년 431만5512명으로 최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감소해 2017년 130만5816명으로 3분의 1 수준 이하로 줄었다.

이처럼 수능과 연계한 EBS 강좌 이용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최근 수도권 주요 대학 위주로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모

집 전형을 늘리면서 수능위주 정시전형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은 약 20% 수준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올해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들이 수능위주 전형 선발인원 비율을 30% 수준으로 높일 것을 권장했다. 대학들은 그러나 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 변별력 하락을 이유로 수능 확대에 적극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표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인 수능 EBS 연계 정책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교육비는 지난해 19조5000억원으로 1년 만에 8000억원이 증가했다. 또 ‘방과 후 학교’ 참여율도 2016년 55.8%에서 2017년

‘07년~’17년 EBS수능강의 활용 현황

연도	회원수	1일 평균 이용자수
2007년	2,627,681	184,048
2008년	2,843,177	249,598
2009년	3,099,224	306,968
2010년	3,399,929	568,064
2011년	3,878,142	694,336
2012년	4,053,552	658,638
2013년	4,315,512	632,210
2014년	2,196,085	704,322
2015년	1,356,179	721,430
2016년	1,319,256	628,163
2017년	1,305,813	514,493

/자료=종로학원하늘교육

54.6%, 2018년 51.0%로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2022 대입 개편에 따라 2022학년도 수능부터 EBS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감소됨에 따라, EBS 강의 교재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EBS 활용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앞으로도 고등학교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고 대입 전형 중 수시 비중이 여전히 높고, 영어 절대평가 시행 등 수능 영

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전제하면, 당분간 EBS 수능 강의 이용자 수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2022 대입부터 정시 수능 중심 선발 비중이 30% 이상으로 권장돼 대입 전형에서 수능 비중이 강화되고 학생부 중심 수시 선발 비율이 감소한다면, 2021년 이후 EBS 이용률을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고3이 치르는 2020학년도 수능 연계 EBS 교재는 국어 영역은 ‘수능특강 화법’ 등 4권, 수학가형 4권, 수하나형 3권, 영어 영역 4권, 탐구 영역 각 과목별 2권씩이다. 현재 고2까지 치르는 2021학년도까지 수능은 EBS 교재와 강의에서 70% 수준 연계 출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고, 연계 대상은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강의다. 연계 유형은 영역별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이 다. 올해 수능 출제 기조와 난이도 등은 평가원 주관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가늠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경희대 첨단의료기술 사업화로 난치병 치료나서

엘피스셀테라퓨틱스와 연구 MOU

경희대학교는 경희의과학연구원(원장 윤경식)과 엘피스셀테라퓨틱스(대표이사 임성빈)가 지난 15일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의과학연구원에서 연구교류 활성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엘피스셀테라퓨틱스는 ‘개인 맞춤형 세포치료제 개발’ 전문회사로 올해 1월 설립했으며, 경희대 의과대학, 생명공학원, 경희의과학연구원 소속 교수진이 연구개발과 임상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임 대표이사는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로, 분자생물학, 약리학, 약물유전체학, 임상시험 등 신약 개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 임상시험 경험으로 향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이끌 예정이다. 대표 연구자인 손



경희의과학연구원과 (주)엘피스셀테라퓨틱스는 지난 15일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의과학연구원서 연구교류 활성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희대학교

영숙 교수는 줄기세포치료제 분야 최고 연구자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세포치료제’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와 학술 활동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와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에 협력한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도 약속했다. /한용수 기자

## 취준생 “신입 마지노선 男 31.8세 女 29.9세”

취업 공백기 평균 17.4개월

신입직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 이상은 ‘최대 이 시기까지는 꼭 취업이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 즉 ‘취업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 취업마지노선은 남성은 31.8세, 여성은 29.9세로 조사됐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최근 신입직 취업준비생 1621명을 대상으로 ‘취업마지노선’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72.1%는 ‘취업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그 이유를 묻자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62.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직원들과의 관계

형성, 조직 적응이 원활하기 위해 (15.1%)’, ‘취업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나이가 있다고 느껴져서(11.7%)’, ‘사회 통념상 그 나이면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서(10.0%)’ 순이었다.

취준생 중 64.9%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1년 이상의 취업 공백기를 거친다고 했고, 이들의 취업 공백기간은 평균 17.4개월로 집계됐다. 취업 공백기가 있는 이유로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가 (37.2%)가 가장 많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준비 기간(19.9%),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14.8%), ▲등록금 마련 등을 위한 알바 기간(6.7%), ▲어학 공부 등 해외 연수 기간(6.0%) 등의 순이었다.

반면, 10명 중 1명 정도인 11.5%는 ‘아무 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흘러 보낸 시간’이라고 응답했다. /한용수 기자

## ‘약학대학 신설’ 1차심사 3개 대학 통과

전북대·제주대·한림대 등 3개교  
이달 말 최종 대학·배정인원 결정  
2020학년도 약대 정원 60명 증원

내년에 약학대학 정원이 60명 늘고, 최대 3개 대학에 약학대학이 신설된다. 신설 약대는 2020학년도부터 ‘2+4년제’ 편입생을 선발하고, 현 고1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통합 6년제’로 전환해 신입생을 선발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약대 정원 60명 증원 계획을 통보받아 2020학년도 약대 신설을 추진한 결과 12개 대학이 약대 신설을 신청했고, 전북대, 제주대, 한림대 등 3개 대학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신대, 광주대, 군산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부경대, 상지대, 유원대, 을지대 등 9개 대학은 이번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교육부는 1차 심사 통과 대학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를 거친 뒤, 1차 평가와 2

차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최종 선정 대학과 배정인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차 심사에서는 약학계와 이공계, 교육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가 대학 교육여건 지표에 따른 정량평가(20%)와 약대 교육·연구여건, 약대 운영 계획 등 대학 평가지표별 정성평가(80%)를 반영해 평가했다.

평가소위원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심사위원회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 평가 상위점수를 얻은 대학을 이번 1차 심사 통과 대학으로 선정했다.

정량평가에서는 교원·교사·교사·수익 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대한 충족율과 신입생·재학생충원율·취업률 등 9개 지표가 반영됐고, 정성평가에서는 약대 발전 계획 등과 교원충원·시설 확보계획 등 10개 항목이 평가됐다.

이번에 증원되는 약대 정원이 60명임을 감안하면 1차 선정 3개 대학이 모두 최종 선정될 경우, 20명 정도의 초소형 약대

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약학대학은 전국 35개 대학에 2019년 기준 총 입학정원은 1693명이고, 내년엔 60명이 증원되면 1753명이 된다. 이화여대와 중앙대가 각각 120명 정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수도권에서는 동국대·삼육대·가톨릭대·아주대·한양대 등이 정원 30명으로 규모가 가장 작다.

한편,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편입학 방식의 약학대학 입시는 공식적으로 2021학년도까지 진행되고, 2022학년도부터는 현행 ‘2+4년제’와 고3 대상 신입생을 뽑는 ‘통합 6년제’ 중 대학 자율로 바뀐다. 다만 약대 인력 수급을 위해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 병행이 가능하다. 이번엔 신규 선정 약대의 경우 기존 약대처럼 2020학년도 신입생을 2+4년제(편입학)로 선발하고, 2022학년도부터 고3 신입생 대상 ‘통합 6년제’로 선발할 전망이다. /한용수 기자

## ‘창립 36주년’ 파고다교육 “맞춤 콘텐츠 집중”

종합 여학교육기관 파고다교육그룹은 올해 창립 36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강남 파고다아카데미 7층 이벤트홀에서 우수·근속 교직원 시상과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루다대표이사(사진)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2019년에는 고객 중심으로 콘텐츠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콘텐츠의 퀄리티를 고도화시키는데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파고다교육그룹은 올해 고객의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를 더욱 개선시키고 신규 서비스와의 접목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신규 사업의 경우 트렌드나 유행을 따



라가는 것을 지양하고, 철저한 내부 검증과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파고다교육그룹의 핵심 경쟁력인 ‘콘텐츠’ 그 자체가 신규사업이 되고, 파고다를 이끄는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인 ‘콘텐츠팩토리’를 신설, 운영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고객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힘 쏟을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미래엔, ‘살아남기TV’ 론칭 버추얼 유튜버 ‘지오’ 공개

교육출판전문기업 (주)미래엔은 아동출판브랜드 아이세움이 국내 출판업계 최초로 버추얼 유튜버 ‘지오’, ‘피피’를 공개하고 ‘살아남기TV’를 론칭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오와 피피는 전세계 2500만부 판매 기록을 세운 학습만화 시리즈 베스트셀러 ‘살아남기’의 주인공이다. 도서 캐릭터가 버추얼 유튜버로 나서는 것은 국내 출판업계 최초다. ‘브이튜버(V-tuber)’로도 불리는 버추얼 유튜버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가상 캐릭터에 모션과 목소리를 더한 사이버 캐릭터를 말한다. /한용수 기자